현대삼호중 'LNG 연료탱크' 전남서 만든다

대불산단 입주 협력사 보원엠앤피와 협약 체결
내년까지 대형유조선 4척분 LNG연료탱크 발주

현대삼호중공업이 전남지역 첨단 조선기자재 업체를 육성한다. 그동안 타지역에서 납품받았던 LNG추진선의 연료탱크 제작을 지역 협력사에 맡긴다는 것이다.

9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일 홍보관에서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협력회사 보원엠앤피㈜와 '신성장산업 LNG추진선 연료탱크 제작 전문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그동안 원거리 업체에서 납품받았던 LNG추진선의 연료탱크를 지역업체가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은 공정과 용접기법 등의 교육과 컨설팅, 검사장비 지원, 물량 발주 등을 통해 지역 협력사를 지원한다. 보원엠앤피는 설계 역량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간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역 협력사로부터 필요로 하는 제품을 먼저 납품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며, 부수적으로 물류비 등 경비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C타입 원통형 LNG연료탱크.

현대삼호중공업은 내년 12월까지 대형유조선 4척분의 LNG연료탱크를 보원엠앤피에 발주할 예정이다.

보원엠앤피가 제작하는 LNG연료탱크는 주로 탱커와 벌커 등 선박에 활용되는 C타입 원통형 LNG 액화가스 연료창으로 9% 니켈강을 주요 자재로 사용한다. 9% 니켈강은 산소, 질소, LNG 등 초저온 액체 저장 용기의 재료로 사용된다. 특히 영하 163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충격 인성을 유지할 수 있어 LNG연료창의 자재로 각광받고 있다.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생산본부장(부사장)과 마광식 보원엠앤피 회장(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신성장산업 LNG 연료탱크 제작 전문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LNG연료탱크는 고압의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용접과 보온, 설계 등에 고난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조선업계는 올해부터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 유해 배기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LNG추진선의 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대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18년 7월 세계 최초로 LNG추진 대형유조선(11만4000t급)을 인도한 이래 지금까지 총 7척의 동형 선박을 인도했으며,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LNG추진선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세계 최초 B타입 1만4800 TEU급 LNG추진컨테이너선과 세계 최초 18만t급 LNG추진벌커의 인도를 앞두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장흥군, 활용계획 없는 군유지 군민에 매각

소규모 일반재산 82필지 환원
재산권 행사·토지 효율성 높여

장흥군은 소규모 일반재산을 군민에게 매각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장흥군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임대하고 있다.

임대기간 중 군민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 신청을 받아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26필지 6075㎡, 지난해 17필지 3236㎡의 재산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매각,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였다.

장흥군은 올해 82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해 매수신청을 받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신청된 토지는 현지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장흥군이 군소유 소규모 일반재산을 군민에게 매각하기로 한 가운데 군청 직원이 공유재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매각이 결정된 토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군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유재산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 안양농협 '그랑프리 인증'

2년 연속 클린뱅크 선정 영예

장흥군 안양농협〈조합장 김영중·사진〉은 클린뱅크 선정대상에서 최고 등급인 '그랑프리 인증'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클린뱅크 인증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연체비율, 고정이하 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등을 평가해 금융기관 건전성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안정적인 대출 취급과 관리로 5년 연속 연체채권 '제로'를 달성한 안양농협은 지난해 재무진단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농협으로 선정됐다.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건전성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안양농협은 전 직원 20명, 조합원 1344명 소규모 지역농협이다.

김 조합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이 농협을 믿고 사랑해준 덕분"이라며 "더욱 발전하는 안양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영암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 20개 사업 추진

영암군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환경 규제 기준 강화와 각종 행위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영암읍과 금정면 2개 읍·면 26개 마을이다. 영암군은 영산강 수계 관리위원회로부터 4억원을 지원받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강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강진군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고정 고객 늘고 매출 '고공행진'

295호 농가 420개 품목 출하
올 매출 200억 목표 달성 온힘

강진군이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농수산물 가공·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육성을 민선 7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기존 생산 중심에서 유통 중심으로 농·수산업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올해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매출 2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농특산물 직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한 택배 고객을 지역·구매 품목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현재 약 9만명의 고정 고객을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직거래 판로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20일 강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임시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특산물 판매를 시작했다.

178㎡ 규모로 가게 안 가게 형태로 시작한 강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는 295호 농가가 참여해 420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다.

매출 역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올 한 해 매출 목표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강진군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진군은 '도농상생 공공 급식 지원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서울시 동작구에 공공급식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올해 1~2월 강진군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매출은 약 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4% 상승했다. 올해 직거래 매출 목표액인 20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강진군은 내다봤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농어업인들이 살아남는 길은 유통 흐름의 트렌드에 적응하는 것"이라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판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수산물 직거래는 필수적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장흥 출신 독립운동가 13명 유공자 포상

장흥 출신 독립운동가 13명이 최근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9일 장흥문화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삼현·최두용 선생 등 13명의 장흥 출신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했다. 이로써 장흥 출신 독립유공자는 모두 43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934년 사회주의독립운동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투옥된 고삼현·최두용 선생을 비롯해 강상국(대덕읍 연정리), 고복동·손영현(이상 대덕읍 신월리), 김개성(용산면 덕암리), 길덕동(장평면 양촌리), 임도진(장평면 등촌리), 이길원·이길종·이천흠(이상 용산면 어산리), 이영대(용산면 인암리) 선생 등이다.

이들은 독립운동 당시 20대 청년들로 각 마을에서 농민야학을 조직해 한글을 가르치는 한편 농민권리 투쟁을 벌이며 독립사상을 고취했다.

여기에 박기평 선생은 장흥 출신으로는 특이하게 1940년 11월 충남 대전 등지에서 활동하다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하지만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을 주도하다 징역 2~3년의 옥고를 치른 유재성(용산면 접정리), 문병곤(용산면 어산리) 선생은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서 빠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들은 해방 후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문제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910~20년대 장평주재소를 습격하고 독립자금을 모집하는 등 항일의병으로 활동한 임학현·임규현(장평면 내동리)과 노전석(장평면 녹양리) 선생도 이번 포상에서 제외됐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